

의료대란에 전남대·조선대병원 ‘비상경영체계’

빅5병원 경영난 “몇개월 못버터”
수술·병상가동률 기준절반 수준
“교수 이탈하면 개점 휴업 돌입”
“의-정 현장복귀 분위기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에 타협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부터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메우던 의대 교수들이 사직·축소 근무를 시작해 의-정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술·병상 가동률이 기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던 대학병원들은 ‘이젠 비상경영체제도 한계’라며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양측이 화해·중재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빅5 상급종합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장은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하루 10억~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마이너스 통장이 바타나는 1~2개월 이후 구조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읍소했다.

현재 빅5 병원은 600억~1000억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운용하며 비상경영 중이다. 환자 안전·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병동 통폐합 등을 추진했지만, 줄어든 수술 수익을 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서울대·서울아산병원 등은 최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 무급 휴가(또는 명예퇴직)를 신청하거나 기간을 최장 100일(기준 30일)로 연장했다.

광주·전남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 3차병원인 전남대·조선대병원은 전공

의가 집단사직한 지난 2월 19일부터 병상 가동률이 점점 떨어져 현재 40~50%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가량 줄어든 수치다. 수술 환자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외래 환자 수도 10% 감소했다.

두 병원 모두 지난달부터 신규 외래 진료 없이 응급환자 위주로 수술을 진행하거나 병상을 통폐합하는 등 축소 운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루 수억원대 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8년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200억 한도) 잔고도 거의 바닥난 상태다.

현장의 힘든 상황에 어렵사리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불안도 커져만 간다.

익명을 요청한 전남대병원 간호사는 “병원에 오랜 기간 다니면서 이렇게 대규모 통폐합이 된 적은 처음”이라며 “기존 병동이 없어진 간호사들은 새 병동으로 근무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경영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병동에 근무자 수만 많아졌다. 잉여 인력이 생긴 탓에 간호사들은 평소보다 3~4개의 오프를 더 받고 있다. 결국 강제 무급 휴가를 가고 있는 셈”이라고 귀띔했다.

교대 근무로 돌아가는 간호사들은 번갈아가면서 휴일인 ‘오프’를 갖는데 이때는 월급·성과급 등에 적용되지 않아 그만큼 적은 돈을 받는다. 여기에 신규 인력 채용 최소화·발령 유예 등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현장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각 병원은 당장 구조조정이나 무급 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진 않지만 의-정갈등이 더 깊어진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정간 갈등으로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 등이 경영난에 직면한 가운데 1일 조선대 병원에서 한 환자가 대기 의자에 누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비상경영을 진행할 만큼 위급 시기이긴 하나 월급이 밀리거나 명예퇴직을 권고할 정도까진 아니다”면서도 “현장을 지켜온 교수들이 정부

에 반발해 일제히 사직서를 모으고 있다. 이 추이가 중요하다. 집단행동 시 경영 상황이 몹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조선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교수들이 모두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 52시간제 축소 근무도 미적용 중”이라며 “곧 의대 비상대책위 교수회에서 최종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취합된 사직서가 제출될 경우 병원이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전체 교수 400명 중 220명(55%)이 사직서를 냈다. 조선대는 161명 중 68명(42%)이 제출했다. 각 비대위는 취합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1일과 2일 교수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계는 의-정이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도출해 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요청했다.

지역 보건의료노조관계자는 “의사들이 자리를 비워 수련병원 환자는 현저히 줄었고 매달 수익씩 손실되고 있다. 그 자리에서 고동받는 건 애꿎은 시민들과 현장 노동자들”이라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집착 말고 근본 논의를 해야 한다. 의료계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를 하길 바란다. 전공의 복귀·의대 교수 사직 철회 등 병원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중단하거나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재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 동구 미양산 산불 원인, 여전히 ‘오리무중’

지난달 20일 광주 동구 학동 미양산 화재 원인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원인 미상’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동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최근까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 동구는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산불 원인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산불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 산림과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있다.

동구는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1시9분께 광주 동구 학동 미양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소방·경찰 헬기 4대와 진화 장비 37대, 소방관·산불전문진화대원·동구청 직원 등 235명이 투입돼 오후 2시14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임야 3500㎡(0.35ha)가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추정되며 산 인근 주택 주민 6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지만 당시 소각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특정이 안된다”며 “소방화재조사관과 동부경찰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특정이 안되면 내사종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596건의 산불 중 229건(38%), 광주지역도 전체 9건 중 6건이 3월에 발생했다.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 4건, 쓰레기 소각 2건이다.

광주시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을 할 경우 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하며 허가된 구역에서 야영·취사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